

50년 넘은 도심 속 거대 공장...이전 서둘러야 한다

금호타이어 화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유독가스로 인한 교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50년 넘게 도심 속에 위치한 노후 공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한때는 도심 외곽에 위치했지만 도심이 확장하면서 시민 불편과 도심 재개발 등을 들어 광주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 공동주택과 상업시설로만 가득 찬 천편일률적인 개발계획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수년 전부터 소음과 분진, 교통 혼잡, 화재 위험 등의 문제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장 주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형 화재로 대규모 제조 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노후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데 따른 공포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광주공장의 경우 광주시 광산구 KTX 송정역과 주거지 등이 맞닿은 도심 한복판에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등도 있어 대형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

30년 전인 지난 1995년 11월에도 1공장에 화재

소음·분진·교통 혼잡 등 주민 불편·안전사고 우려 지속 제기
합평 산단으로 이전 수년째 답보...사측 “사고 수습이 먼저”

가 발생, 주민들이 유독가스를 피해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금호타이어 측도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광주공장을 지역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었다.

1974년 설립된 광주공장은 자동화와 수동화가 상존하는 반자동 사업장으로, 전자 전동 타이어나 생선 확대 등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친환경 신공장 건립이 필수적이라는 게 회사 측 판단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광주시와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0월 합평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확정하면서 광주공장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광주 송정역 인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의 개발계획과 관련,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인 부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부지를 용도변경해 매각하면 공장을 옮기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 방향을 놓고 특히 시비와 지역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합리적 절충점 찾기가 시급한 형편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지역구로 둔 광주 광산구 의원들도 지난해부터 “도심 내 거대 공장이 더 이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한찬민(30)씨는 “화재 당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데 하늘 전체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암흑이었다”며 “주거지 한복판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 물질이 가득한 노후 공장이 아직까지 가동되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공장 복구 상황, 비용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로서는 화재 수습이 우선인 만큼 공장 이전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듯 하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7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불이나 화염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금호타이어 화재 수습 최선 다하겠습니다”

정일택 대표이사 사과·입장문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가 광주공장 화재에 대해 사과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18일 사과문을 통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화재 진압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들은 조기에 화재가 수습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모든 과정에 협조하겠다”며 “공장 인근 주민분들께서 대피해 계시는데, 불편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다시 한번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사과드리며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금호타이어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속히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화재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는 광주시·광산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피해 복구와 생산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광주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타 공장으로의 전환을 긴급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카메이커 대상 신차용(OE) 타이어나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화재 진압과 지역사회의 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하며 회사는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며 전사적 차원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

전남 동네병원들 ‘버틸수가 없다’

10곳 문 열때 9곳 문 닫아...폐업률 90.3%

일부 지방에서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개업하는 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104곳으로, 이 지역에서 신규 개업한 의료기관(94곳)보다 10곳 많았다. 신규 기관 대비 폐업률은 110.6%다.

같은 해 울산에선 의료기관 75곳이 문을 닫았고, 69곳이 새로 생겨 폐업률은 108.7%였다.

이외에도 충북 97.6%, 경남 89.2%, 전북 88.5%, 광주 83.6% 등 지방에서 신규 기관 대비 폐업률이 높았다.

흔히 ‘동네병원’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시도별 개·폐업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남에선 의원 175곳이 문을 열었고 158곳이 문을 닫아, 개업 대비 폐업률은 90.3%에 달했다. 폐업률은 경북 81.9%, 충북 77.2%, 경남 75.7% 등으로 높았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대체로 맑음

일교차 커 건강 유의를

월요일인 19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광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김진아 기자 jinggi@

흑산도 해역 규모 2.4 지진

도, 무단 방치 농기계 이동명령

18일 오후 1시 1분 21초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83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은 북위 35.19도, 동경 124.7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km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전남도는 농촌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단 방치 농기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34대에 대해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각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농촌 마을, 농기계 보관장과 주변, 폐농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방치 농기계 34대를 확인해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방치 농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료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료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법제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